제6강 피카소 : 입체적 형태를 통한 사물Ⅱ (0709_03/04)

(1교시-0709-03)

◎ 피카소 예술의 특징들 (5강에 이어)

3) 사물의 변형 가능성 내지는 가소성에 집중.
- 사물에 대해 주어지는 지각상태에 가두어지는 것을 거부.
- 도구성을 뺀 사물. 재료 그 자체로서 사물성을 드러냄.
⇒ 종합적 큐비즘에서의 구현. 세잔이 구현하고자 한 사물의 지평성을 극단화.

* 그림 (자전거 손잡이와 앉은 판을 결합해 만든 황소머리)

⇒ 사물자체가 지니고 있는 자생적인 다산성과 생성의 논리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데서 예술이 성립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나타냄. 마르셀 뒤샹의 레디-메이드 예술의 안출과 깊은 관련.

4) 형태적 본질의 추구.
- 한 사물의 본질도 그 형태에 있고 사물들과의 관계도 형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사물들의 변형 역시 형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역점을 둠. (≠세잔의 색채주의)
⇒ 세잔의 형태적이고 구도적인 측면을 강조한 피카소의 입체주의. 색채가 흐르다가 형태를 만들어 낸다. '형태 속에 색이 갇혀있다.'

(2교시-0709-04)

◎ 피카소의 예술과 사물 그리고 후설의 현상학

▲ 후설의 현상학적 지각론

- 지각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
- 질료(Hyle, 순간순간 주어지는 다면적인 지각 내용의 흐름)와 노에마(Noema, 동일하게 유지되며 쉽게 흐르지 않는 전체적인 모습)
⇒ 질료에 일정하게 의식의 힘이 작용해서 노에마를 구성하게 된다. (의식작용 : 노에시스, Noesis)
⇒ 모든 의식 활동에는 <질료-노에시스-노에마>라고 하는 인식구조가 작동한다.

▲ 피카소가 분석적 큐비즘을 통해 구현한 작품 방식

- 2차원적인 평면에 사물의 3차원성 즉 입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고민.
- 세잔의 다중 시선을 극단화. 회화의 근본적인 한계를 깨뜨림.
- 1907년 작, <아비뇽의 아가씨들>
⇒ 사물의 본질이란, 근본적으로 질료의 종합을 통한 노에마의 형성에 있다. (후설의 현상학을 보다 앞서 표현.)

www.artnstudy.com

▲ 피카소의 위대한 발견

- 사물과 우리의 만남이 순간순간의 얄팍한 내용으로서는 그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 사물과 우리 사이의 시간적인 누적에 의해 형성되는 두툼한 두께를 통해 비로소 사물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
- 시간적인 두툼한 두께를 극단화된 다중 시선의 통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회화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
-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는 사물이 그 기능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모든 규정성들을 넘어설 정도로 다재다능한 자기 생성과 타자로의 변신을 일삼는다는 점을 꿰뚫어 본 것.
⇒ 사물은 고정된 본질을 갖지 않으며 그 어떤 것으로도 변형될 수 있다는 열려있는 믿음이야말로 사물을 사물이게 하는 본질적인 측면이다.

◎ 열려있는 사물의 본질과 예술

▲ 피카소의 예술

- 예술이란 사물의 고정된 형태를 파괴하거나 해체함으로써 고정된 시각에 의해 주어지는 상투적인 사물이 아니라 자기 생성과 타자 생성의 힘을 발휘하는 사물을 표현하는 데서 성립한다.

- 형태를 미세하게 해체, 재구성함으로써 상투적인 사물의 형태가 자기 생성하면서 태어나는 장면을 목격하도록 한다.(분석적 큐비즘)

- 한 사물이 상식적으로는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다른 사물들과 결합함으로써 각각의 사물이 지니고 있는 고정된 형태가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것임을 폭로하면서 사물이 지니고 있는 자기 생성과 타자 생성의 힘이 발휘되는 것을 목격하도록 한다.(종합적 큐비즘)

⇒ 피카소 예술의 의미 : 회화 예술이 겉으로 표현되는 사물의 모습을 넘어서서 자기 생성과 타자 생성이라는 사물 내부의 힘에 접근하게 됨. 더불어 회화가 새로운 영역을 열어젖혀 사물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조각이나 설치 등과 확실하게 연결되는 고리를 얻게 되었다. (“조각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화를 자르기만 하면 된다.” - 피카소)

www.artnstudy.com